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입니다. 사순절 연속기도가 4월 4일(토)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 목요세족예배가 4월 2일(목)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세족예배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 고난주간 가정예배 안내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활절 맞이 대청소가 4월 4일(토)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며 오후 7시부터 부활절 찬양 잔치가 있습니다.
- 오늘 오후 1시 30분 공동체 사무실에서 공동체운영위원회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 정태일 목사님은 일본비전공동체 18주년 감사예배 설교를 위해 출타하셨습니다.
-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병우 · 정영옥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13 호

2026년 3월 29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토대이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생활을 창안하셔서, 비극적 고투와 최후 승리로 끊임없이 새롭게 이끄신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 공동체의 길은 직업 생활의 현실, 생존 경쟁의 현실, 인간 개성으로 인한 모든 난제의 현실 속으로 우리를 유도하는 까닭에 치명적인 위험과 가장 괴로운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가장 심원한 기쁨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삶의 비극, 삶과 죽음 사이의 이 엄청난 긴장, 천국과 지옥 사이의 이 상태를 분명히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생명의 압도적인 힘, 사랑의 극복하는 힘, 진리의 승리를 믿기 때문이다.

믿음은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며, 사유 체계도 아니고, 말의 조합도 아니다. 믿음은 종교의식도 아니고, 조직체도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며, 길을 걷게 하는 힘이고, 인간적으로 보자면 신뢰 구축이 파괴된 곳에서도 거듭거듭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 가능성이다. 믿음은 도처에 늘 있는데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본질적인 것과 영원토록 살아 있는 것에 눈길을 보낸다. 믿음은 인간을 사회적 관습이나 결점에 의거하여 평가하지 않고, 배금주의와 비열함과 흉악함으로 얼룩진 인간 사회의 이 모든 가면이 거짓임을 꿰뚫어 본다. 그러나 믿음은 인간 개성의 현저한 사악함과 변덕스러움 이 인간 본래의 결정적 속성이라도 되는 듯이 말하는 다른 견해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믿음은 다음의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즉,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현재 본성만으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감정의 기복
선교와 섬김

과 동요, 육체적 · 심리적 만족을 탐욕스레 추구하는 성향, 신경과민과 야망의 심리적 동인(動因), 타인에 대한 영향력 추구, 인간의 모든 특권은 진정한 공동체 건설을 막는 장애물이지만, 인간은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믿음은 이러한 탐욕적 성향과 성격적 결함이라는 사실적 여건이 결정적인 것이라도 된다는 듯이 말하는 허구에 굴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 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보다 강하시다. 공동체를 건설하는 힘인 그분의 영이 모든 것을 이겨 낸다. 여기서 분명해지듯이, 궁극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공동체의 형성과 공동생활의 실질적 구축은 배제되고, 아무리 성가셔도 인간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선이나 법의 강제력을 신뢰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악의 실재에 부딪혀 좌절할 수밖에 없다. 선의 궁극적 신비에 대한 믿음,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를 형성 할 수 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 그러한 결정적인 생활의 시도 가운데서만,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삶을 영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즉 공동체를 형성하는 능력이 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에버하르트 아놀드 저 '공동체로 사는 이유'에서 발췌

못 다한 계획

부산 출장 중 마음이 뒤숭숭해 공단에 있는 공원을 걷고 있는데 병원에서 간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아침부터 호흡이 가빠지셨다는 내용이였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아버지는 영면하셨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친구와 술을 좋아하셨다. 그래서였는지 아버지는 늘 바쁘셨다. 대학생이 되었을 무렵에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그때부터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나대로 늘 바빴다.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아버지와 특별한 시간을 보낸 기억이라고는 매년 명절에 친척집을 따라 다니던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아보니,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참 적다.

자식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명예퇴직을 하고 연세가 드시자 자식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셨다. “차 조심해라!”는 당부를 자주 하시고, 고향집 방문 후 집에 돌아갈 때면 도착하기도 전에 “잘 도착했냐?”는 전화를 하셨다. 동생들은 어린아이도 아니니 그런 걱정은 마시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 진정으로 자식들을 위한 마음이라 느껴졌다. 표현이 서툴고 많지 않아도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느꼈고 감사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퇴직을 하면 아버지를 모시고 전국에 좋은 곳을 여행하고 싶었다. 여동생도,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올해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은 소용이 없게 되었다. ‘노년의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나에게 이 말이 현실이 되었고 후회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육신의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나에게게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때는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루터기사랑방 박태규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이어진 전도사

찬송 : 484장, 588장

성경 : 마태복음 6장 24-33절

말씀 : 믿음으로 결핍을 이겨내자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중동 분쟁의 종식을 위해서>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여파가 점점 증가합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도 크지만, 복잡한 이익관계에 따라 전쟁의 종료는 아직 요원합니다. 피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강원도 영월 브루더호프>

지난주 젊은이사랑방이 공동체생활로 강원도 영월에 자리한 브루더호프에 다녀왔습니다. 짧았지만 함께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가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몸이나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 2) 교육관 증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 3) 연속기도에 은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씨 감자를 잘라 잘 말렸다가 멧쟁이들과 함께 밭에 모두 심었습니다. 이제 싹이 올라와 잎이 무성해지는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 작물들로 밭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풍성해질 밭이 기대가 됩니다.

교육관 2층 증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주말인데도 하루종일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

한주간의 말씀

“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
<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90, 15 / 454
기도 : 이어람 집사
성경 : 열왕기상 11장
제목 :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1. 내용: 솔로몬이 통치 후반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What)
<문단구분>
1~8절 솔로몬이 이방인 아내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다
9~13절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
14~40절 솔로몬의 대적들
41~43절 솔로몬의 마지막
2. 의미: 솔로몬이 마음을 아내들에게 빼앗겼다. (Why)
1)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 경고를 두 번이나 하셨다. 처벌이 아닌 사랑이 전제된 경고이다.
3) 교만이 눈을 가리웠다.
3. 적용: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How)
1)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점검하고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2)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3) 겸손하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자.

저는 올해 입대를 준비하기 위해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 독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인상적인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의 이름은 [고백록]으로 톨스토이가 50대에 허무함을 느껴 삶을 고찰한 책이었습니다.

당시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에 성공으로 부, 명예, 지식을 고루 갖춘 상태였으며, 결혼 후 1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인류의 진보를 이끌고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40~50대가 접어들며 삶은 결국 유한하며 본질적으로 죽음이라는 허무 앞에서 삶이 곧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사람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두 번째는 현재의 쾌락(책에서는 꿀이라고 표현합니다.)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깨닫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용감한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는 깨닫고도 죽지 못하는 자신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철학과 수많은 학문을 탐구하며 삶이 무엇이고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톨스토이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는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이 떠올랐고, 본격적으로 신앙을 탐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을 탐구하며 그가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은 학자나 교사, 목사 등 지식인들이 아니라 농부나 소소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글로 배운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톨스토이는 신앙에서 유한성이 아닌 삶의 연장선인 무한성을 보았고 그 덕에 삶의 이유 즉, 존재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AI의 발전으로 점점 인간의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AI가 인간의 모든 일을 대체하여 인간이 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본질이 평가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왜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톨스토이의 해답인 신앙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푸른사랑방 정이안 청년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들은 예쁜 걸 좋아합니다. 세 명이 각자 큰 종이 위에 누워서 전신 본을 뜨고 함께 얼굴과 옷을 그리며 놀았습니다. 얼굴에 예쁘게 빗은 머리와 핀을 그려 넣고 속눈썹도 그리고 볼도 발그레하게 색칠을 합니다. 손톱을 알록달록 칠하고 반지랑 팔찌를 그려넣고 옷과 양말에 예쁜 무늬를 그립니다. 한 명만 그리는 것도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지칠 수 있는데 세 명을 다 그리도록 열심히 열심히 그립니다. 다 그리고 나서도 지치지 않고 시트지를 이용해서 떼었다 붙일 수 있는 팔찌를 만들어 손목에 차고 좋아합니다.

음률놀이 시간도 좋아합니다. 악기로 봄에 들리는 두꺼비소리 새소리를 내보고 봄노래에 맞추어 탬버린을 두드리고 흔들며 리듬을 익히고 행복한 얼굴로 뛰어다니며 연주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린이 언니오빠들을 두 번 만났습니다. 어린이와 놀기 시간에 1학년 언니오빠들이 오니 평소에 잔잔하게 역할놀이를 하던 친구들이 오랜만에 시끌시끌하게 놀다. 성만찬과 세족식이야기도 어린이 1~2학년과 함께 들었습니다.

치과, 안과 검진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뒤로 이를 더 열심히 닦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월요일 부활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행함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이 행할 것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행동으로 나타낼 선한 일을 쓰는 것이었는데 꾸준히, 계속 실천하면 제일 좋겠는데 적어도 부활절까지는 꼭 실천하자고 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부서별 보고사항에서

· 미화부 : 4월까지 게르를 정리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 도서부 : 월요일에 대출, 반납 잘 해주세요. 월요일 자유시간에 동그라미에서는 독서관련 활동만 해 주세요. 도전책읽기 스티커를 많이 붙여봅시다.

· 트램플린은 월, 수, 목 청소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타지 말아주세요. 자전거는 아직 상태 확인 중입니다. 패드민턴은 교무실 앞장에 올려놓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부서 활동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어린이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이번주 멋쟁이 생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새천년건강체조 대회였습니다. 6학년부터 신입생까지 전체학년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한 주동안 틈틈히 시간이 나는대로 각 학년이 학교 곳곳에 모여서 다양한 동선을 짜고 서로 동작을 맞추며 연습을 했습니다. 감기증상 등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멋쟁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열정을 막을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는 듯 보였습니다. 왜 새천년건강체조 대회는 멋쟁이들에게 이토록 중요할까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후배들에게서 지켜내고 싶은 선배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동작을 실수없이 이행함을 넘어서 힘과 절도있는 모습으로 '역시 선배구나!'하는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또한 단합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멋쟁이 생활의 기본, 즉 하루의 시작은 새천년건강체조와 운동장 뛰기로 시작됩니다. 매일아침 모두가 함께하는 체조를 온전히 익힌다는 것은 단합심과 소속감을 길러주며 건강한 하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목요일 오후 열린수업에서 새천년건강체조 대회가 있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준비했고 각자의 순위에 만족하는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멋쟁이의 밤은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부활절 연속기도에 참여하며 정재훈 목사님과 면담도 나눴습니다. 선배 멋쟁이들이 후배 멋쟁이들과 함께 기도실에 들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함께 기도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 교사 : 조민아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빌립보서 2 : 5-8 인도자
14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3 : 17 인도자
143, 144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스가랴서 9 : 9-13 설교자
150 새쌍사랑방
“ 낮은 곳으로 오신 왕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설교자
341 다함께
인도자
288(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영동 전경희 / 봉헌위원 : 정혜정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찾아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낮은 곳으로 오신 왕

평화의 입성. 종려주일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한
평화의 왕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세상 왕들은 군마를 타고 힘을 과
시하지만, 예수님은 병거와 활을 꺾으며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포
하셨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
하는 수수한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보
여주셨습니다.

충돌하는 시선.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이 로마를 물리칠 영웅이 되길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
선은 화려한 궁전이 아닌 고통의 자리 '골고다'를 향하고 있었습니
다.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뒤로하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십
자가의 길을 묵묵히 선택하셨습니다.

비움과 순종.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종
의 형체를 입으심으로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욕
망의 껍데기를 벗고, 이웃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비움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사명이 선명해지며, 비로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채우실 것입
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중필 집사